

가을, 삼청동을 거닐 시간

김아미 기자

2014-09-12 10:05



국제갤러리 3 관에 걸린 이우환의 작품들 (사진 김상태). [사진제공=국제갤러리]

▶국제갤러리 '단색화의 예술'전 (8 월 28 일~10 월 19 일)=국제갤러리는 단색화 거장들의 작품으로 전관을 채운 전시를 약 두달에 걸쳐 개최한다. 이젠 해외 미술계 인사들도 거침없이 고유명사로서 'Dansaekhwa(단색화)'를 말할 정도로 더 이상 서구 미니멀리즘의 한 지류가 아닌 한국의 독창적인 미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단색화 작품들을 대거 내건 것. 1970년대 단색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기린, 정상화, 정창섭, 하종현,

이우환, 박서보, 윤형근 등 작가 7인의 작품들을 다시 보며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단색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amigo@heraldcorp.com

URL: 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40912000298&md=20140915004015_BK

\